2025년 12월 29일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| 투자전략팀

KIWOOM WEEKLY

새해 랠리의 시동 키

한국 증시는 1) 미국 AI주들의 주가 변화, 2) 12월 FOMC 의사록, 3) 달러/원 환율 변화, 4) 국내 연말 배당락, 5) 한국 12월 수출, 6) SK하이닉스 투자경고 해제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4,200pt대 진입을 시도할 전망(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4,050~4,220pt).

이번주도 달러/원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겠으나,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를 보면 그 변동성은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, 지난주 달러/원 환율이 1,440~1,480원대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음에도, 외국인은 이와 무관하게 코스피를 5거래일 연속 순매수(12월 22일~26일 4거래일 누적, +4.3조원)에 나섰기 때문. 이는 현재 외국인들이 환율 플레이를 하기 보다는 반도체 중심의 펀더멘털 플레이를 하고 있음을 시사. 주 초반 반도체 업종의 단기 차익실현, 배당락 등으로 일시적인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으나, 주도 업종인 반도체 포함 국내 증시 전반에 걸친 비중 확대 기조는 유지할 필요.

Strategist 한지영
hedge0301@kiwoom.com

Market/ESG 이성훈
shl076@kiwoom.com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2월 26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1.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

국내 증시는 마이크론 신고가 경신, 엔비디아 그록 인수, 중국향 H200 수출 기대감 등 반도체 업종 호재가 연이어 출현한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개입 의지 속 원화 약세 진정 기대감 반영되며 대형주 중심으로 자금 유입된 결과 양 지수는 상승 마감(KOSPI +2.71%, KOSDAQ +0.48%)

주 초반 국내 증시는 전 주 금요일 마이크론 신고가 경신, 오라클 및 브로드컴 등 AI주 동반 강세 등 미국발 호재 속 외국인, 기관 대규모 동반 수매수세에 힘입어 급등세로 출발. 여기에 중국향 H200 수출 기대감 속 마이크론, 엔비디아 등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결과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 외국인 자금 유입 집중되며 대형주가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. 테마 측면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우주 테마주 전 주에 이어 강세 지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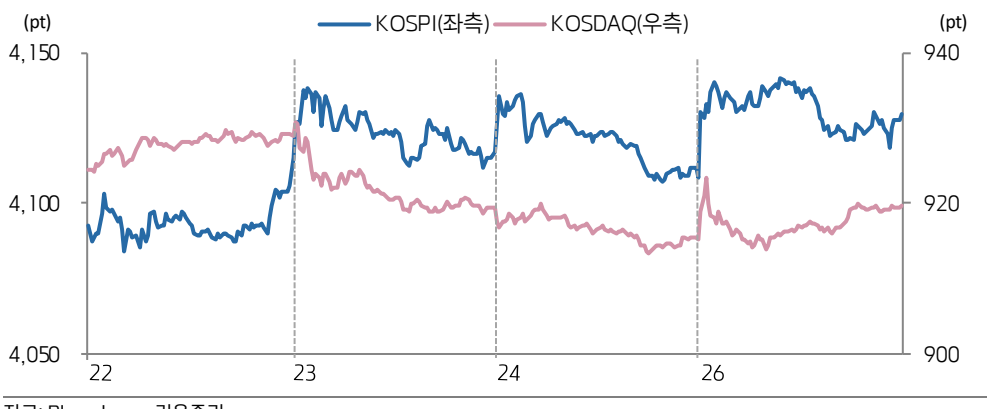
한편, 24일(수) 외환당국은 "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 하지 않으며,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"이라고 언급하며 비교적 강한 수위의 구두개입에 나섬.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해외주식의 국내 복귀 지원(RIA 계좌 신설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), 개인투자자 환위험 관리(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 도입 지원 및 환헷지 실행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혜택 부여), 기업 해외수익 환류 촉진(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입금불산입률을 100%로 상향) 등을 골자로 한 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달러/원 환율은 30원가량 급락하며 1,440원대 레벨로 안착.

AI 고평가 우려 및 매크로 불확실성 완화되며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증폭. 여기에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일정 부분 가로막고 있었던 원화 약세도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외국인은 반도체를 필두로 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며 주 후반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.

업종별로 전기/전자(+7.41%), 제조(+3.9%), KOSPI(+2.71%), 보험(+2.59%), 금융(+1.13%)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, 섬유/의류(-5.1%), 유통(-2.62%), 제약(-2.3%), 건설(-1.86%), 화학(-1.73%)은 부진한 흐름

한편, 외인(+4조 3,584억원)은 전기/전자(+46,245억원), 제조(+41,829억원), IT 서비스(+745억원) 순으로 순매수, 기관(+2조 6,065억원) KOSPI(+26,056억원), 제조(+23,188억원), 전기/전자(+22,396억원), 금융(+2,058억원) 순으로 순매수

KOSPI, KOSDAQ 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

		국가	경제지표	대상	전망치	이전치
12 월 29 일	월	미국	미결주택매매 (MoM)	11 월	0.8%	1.9%
		지수	**한국 배당락일**			
12 월 30 일	화	한국	산업생산 (MoM)	11 월	2.4%	-4.0%
			소매판매 (MoM)	11 월	-	3.5%
		미국	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	12 월	-5.0	-10.4
12 월 31 일	수	한국	CPI (YoY)	12 월	2.3%	2.4%
		중국	제조업 PMI	12 월	49.3	49.2
			서비스업 PMI	12 월	49.7	49.5
			레이팅독 제조업 PMI	12 월	49.7	49.9
		공개	**FOMC 회의록 (한국시간 오전 4:00)**			
		휴장	**일본, 한국 등**			
1 월 1 일	목	한국	**수출 (YoY)**	12 월	8.0%	8.4%
			수입 (YoY)	12 월	2.3%	1.1%
		정책	**트럼프 감세안(OBBBA) 발효**			
		휴장	**미국, 한국, 일본, 중국 등**			
1 월 2 일	금	한국	S&P 제조업 PMI	12 월	-	49.4
		미국	S&P 제조업 PMI	12 월	51.8	51.8
		휴장	**일본, 중국 등**			

출처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2. 한국 증시 전망

한국 증시는 1) 미국 AI주들의 주가 변화, 2) 12월 FOMC 의사록, 3) 달러/원 환율 변화, 4) 국내 연말 배당락, 5) 한국 12월 수출, 6) SK하이닉스 투자경고 해제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4,200pt대 진입을 시도할 전망(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4,050~4,220pt).

26일(금)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(+1.0%)의 AI 추론용 LPU 칩 업체 그록 인수 소식 등에도, 연말 폐장을 앞둔 거래 감소 속 AI, 원전, 클라우드 등 주요 업종 및 테마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됨에 따라 약보합 마감(다우 -0.04%, S&P500 -0.03%, 나스닥 -0.09%).

이번주도 주요국 증시는 연말 폐장 및 새해 휴장으로 인해 전체 거래일수가 3~4일(한국, 중국, 일본 3거래일, 미국 4거래일)에 불과한 만큼, 전반적인 거래는 한산할 전망. 다만, AI, 연준, 환율 등 최근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동인들과 관련된 이벤트들은 대기하고 있는 만큼, 업종 및 종목 간 거래 대금 및 주가 차별화는 진행될 것으로 판단.

매크로 측면에서는 31일(수, 한국시간 새벽) 12월 FOMC 의사록이 중요. 12월 FOMC 25bp 인하에도, 미 10년물 금리는 레벨다운이 되지 않은 채 4.10~4.19%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. 이 같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탈동조화는 인플레이션 우려, 차기 연준 의장 불확실성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, 연준 내 의견 대립 심화 문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(ex: 12월 FOMC 금리 결정 반대 위원 3명 vs 기존 2명).

따라서, 12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시장은 연준 내 분열의 수위를 확인해가면서, 연초 시장금리 방향성 전망에 변화를 주는 미세조정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. 그 과정에서 고밸류에이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AI 관련 테마주나, 금리 변화에 민감한 경향이 있는 바이오주에게 이번 FOMC 의사록은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될 전망.

국내 증시에서는 29일(월) 배당락 이벤트가 지수에 일시적인 영향을 주겠으나, 이보다는 달러/원 환율 변화가 증시의 뉴스플로우 중심을 차지할 예정. 지난 12월 24일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(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감면 등)으로 달러/원 환율이 1,480원에서 1,440원대로 약 40원 가까이 속락한 상황. 이렇게 단기적인 환율 급등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거두었지만, 여전히 중장기적인 실효성을 놓고 시장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.

이번주도 달러/원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겠으나,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를 보면 그 변동성은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, 지난주 달러/원 환율이 1,440~1,480원대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음에도, 외국인은 이와 무관하게 코스피를 5거래일 연속 순매수(12월 22일~26일 4거래일 누적, +4.3조원)에 나섰기 때문.

이는 현재 외국인들이 환율 플레이를 하기 보다는 반도체 중심의 펀더멘털 플레이를 하고 있음을 시사. 일례로 지난주 삼성전자가 10%대 급등하면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나, 투자경고로 수급이 제약된 SK하이닉스도 9%대 급등한 것도 수급 상 외국인의 순매수세 덕분이었음(지난주 외국인의 코스피 반도체 순매수 금액은 +4.4조원).

이와 연장선상에서, 이번주에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의 투자 경고가 해제된 만큼 기관 및 개인들의 수급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. 더 나아가, 1일(목) 한국의 12월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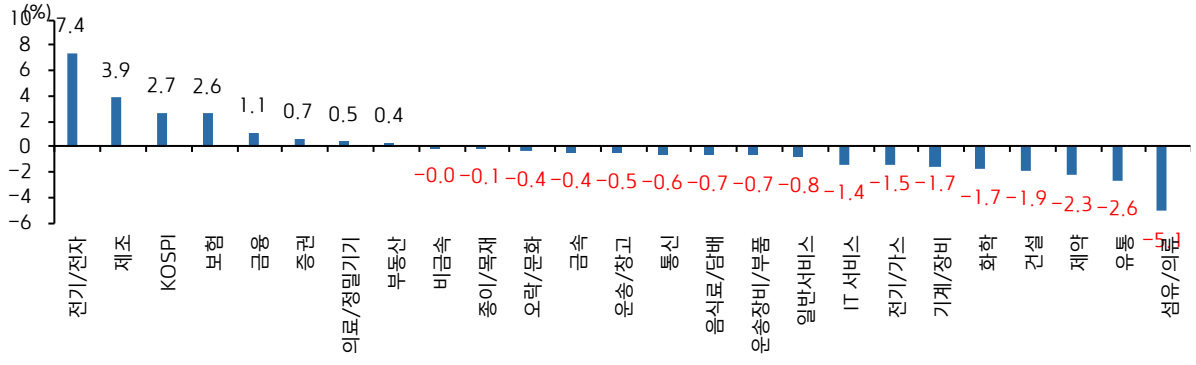
(YoY, 컨센 8.0% vs 11월 8.4%)이 반도체 등 주력 업종 중심의 호조세를 기록하면서, 새해 랠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도 주중 대응 전략에 반영할 필요. 이를 감안 시, 주 초반 반도체 업종의 단기 차익실현, 배당락 등으로 일시적인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으나, 주도 업종인 반도체 포함 국내 증시 전반에 걸친 비중 확대 기조는 유지하는 것이 적절.

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

시장	종가(pt)	기간별 수익률			
		D-1(%)	D-5(%)	D-20(%)	YTD(%)
코스피	4,129.68	0.5	2.7	4.3	72.1
대형주	4,273.46	0.7	3.3	4.5	78.9
중형주	3,749.01	-1.5	-1.3	0.3	41.1
소형주	2,546.05	-0.3	-0.6	4.1	21.6
코스피 200	590.08	1.0	3.8	5.5	85.7
코스닥	919.67	0.5	0.5	4.8	35.6
대형주	2,242.68	0.5	0.2	1.5	39.0
중형주	884.18	0.7	1.4	9.7	49.9
소형주	2,561.97	0.1	-0.2	4.9	15.0
코스닥 150	1,540.87	0.7	0.5	1.0	36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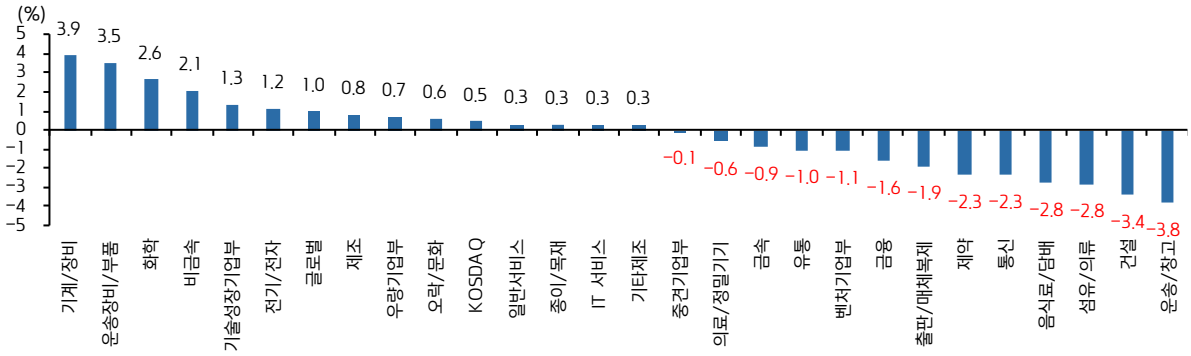
출처: FnGui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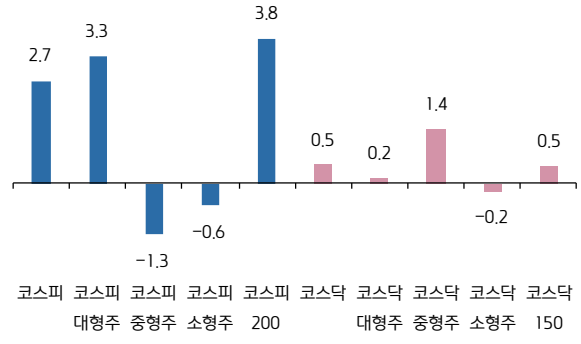
출처: Infomax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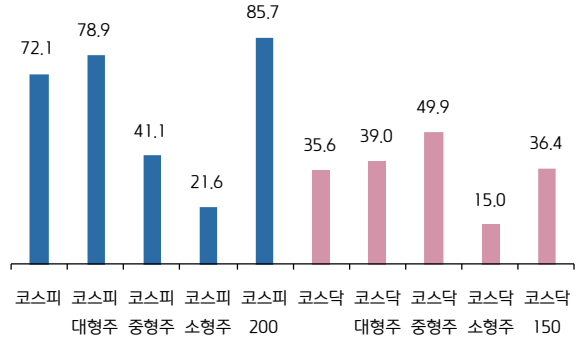
출처: Infomax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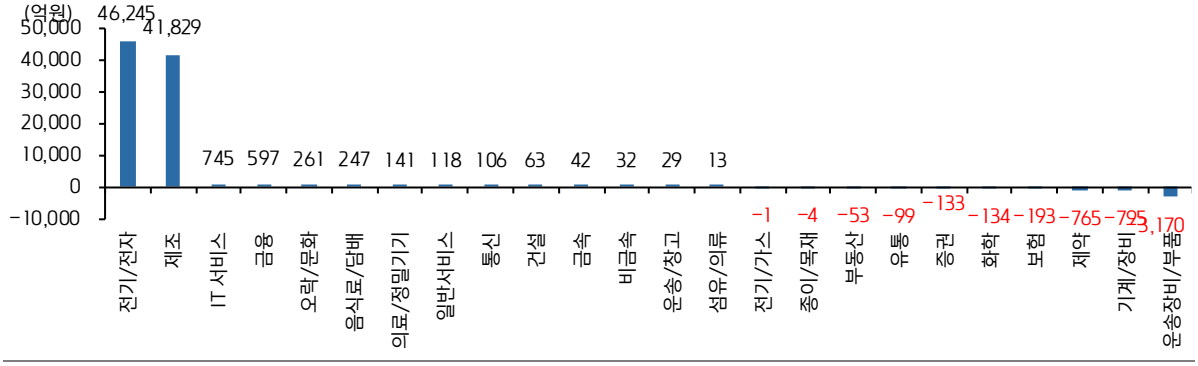
출처: FnGui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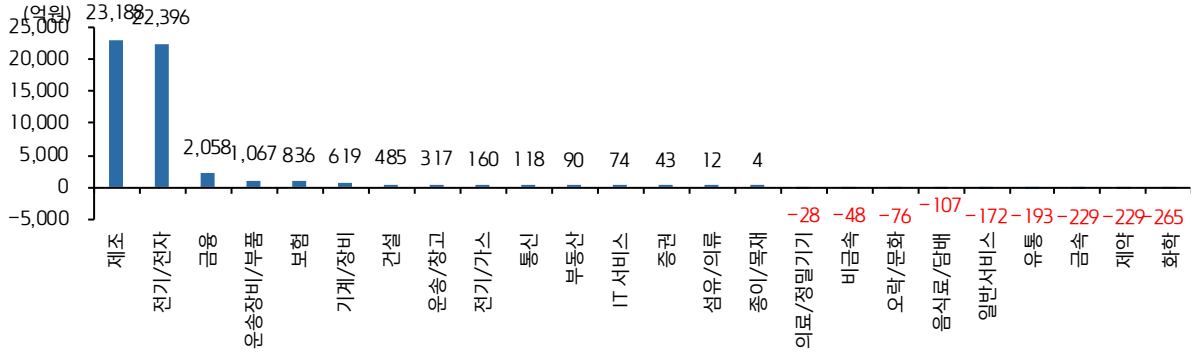
출처: FnGui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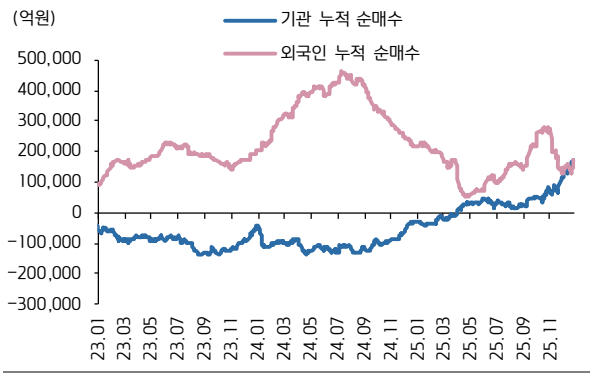
출처: Infomax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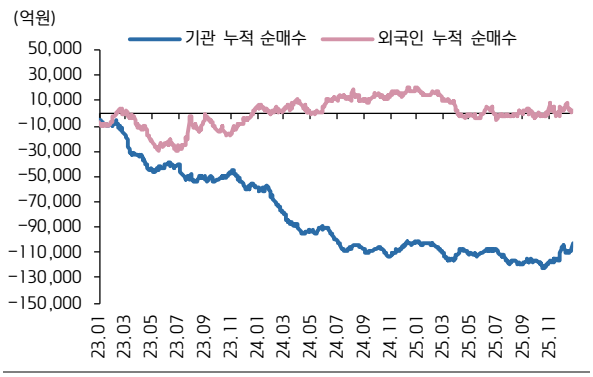
출처: Infomax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KOSPI 기관,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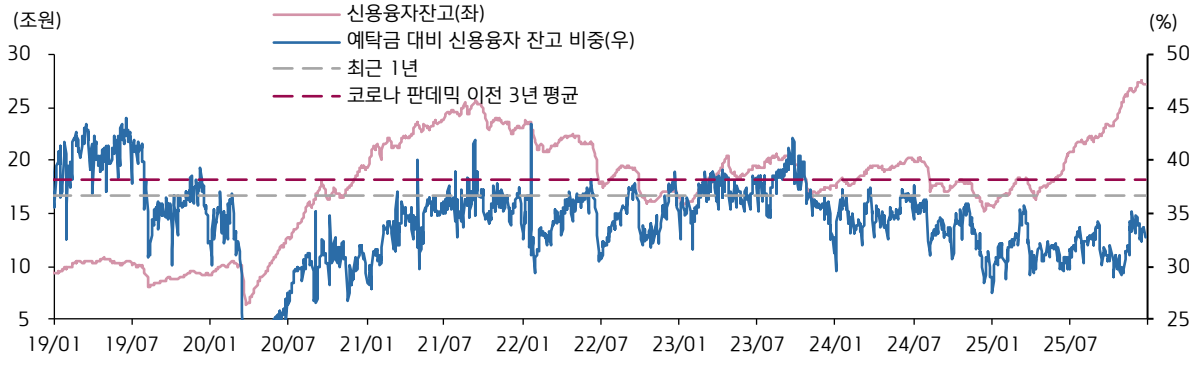
출처: FnGui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KOSDAQ 기관,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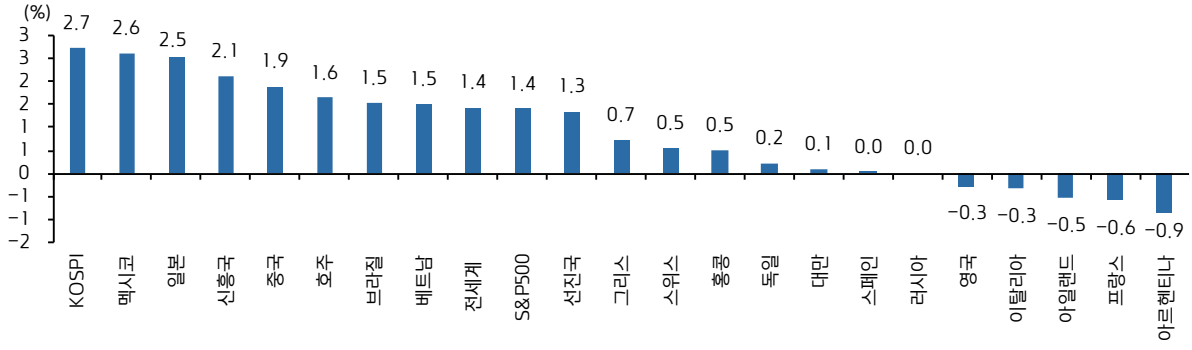
출처: FnGui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KOSPI+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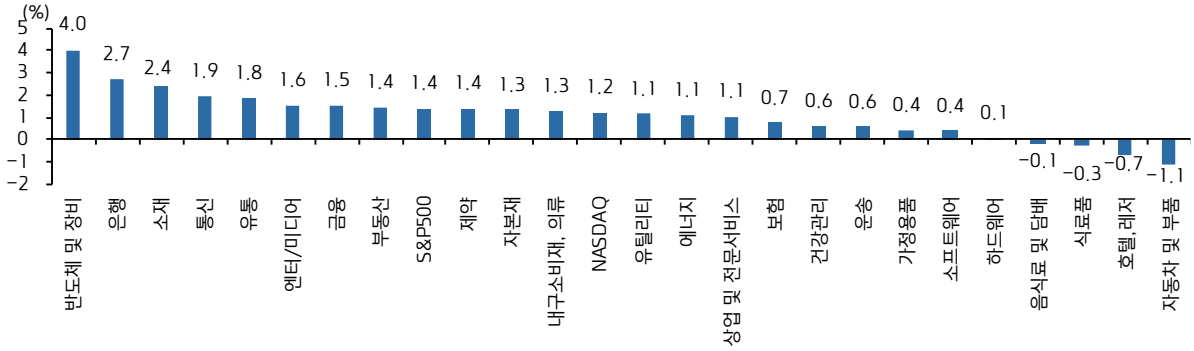
출처: FnGuide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



출처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

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



출처: Bloomberg, 키움증권 리서치센터